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MOTHEREST

가제 : 마더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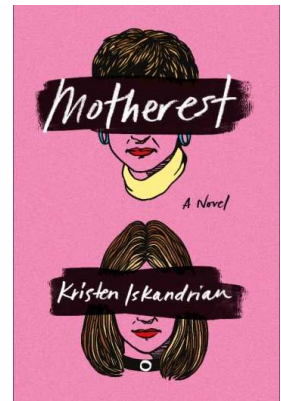
저자 : Kristen Iskandrian

출판사: Twelve

발행일: 2017년 2월

분량 : 약 113,500 words

장르 : 소설/ 문학



- * “상실과 외로움, 부모가 되는 것, 사랑을 사람처럼 각양각색 모습으로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 부모 자식 사이에도 때로는 메울 수 없는 틈이 있음을 강렬하고 솔직하게 보여준다.” – 『Nix』의 작가 네이션 힐
- * “디킨스 소설의 여주인공이 텅 올린 언펄스나 캐서린 던, 리디아 데이비스의 글에서 되살아나듯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최근 몇 년간 읽은 책 중 가장 인상적이다” – 『THE LAST ILLUSION』의 작가 포로치스타 카푸르

대학에 갓 입학한 아그네스는 적응하기 힘든 캠퍼스 생활에 당황스러워한다. 수업시간에 던져지는 복잡한 과제부터 술과 연애에 목숨 거는 대학생들까지, 아그네스는 다들 잘만 해나가는데 자신만 혼자 동동 떠 있는 섬이 된 것 같다고 느낀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가 찾은 방법은,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어딘가 독특한 룸메이트와 조금씩 친해지는 과정과 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야기, 철학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난,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어느 남학생을 향한 감정까지 아그네스는 편지를 일기 삼아 일거수일투족을 털어 놓는다. 하지만 답장을 바라지는 않는다. 대학 기숙사에 짐을 옮겨주자마자 쫓기듯 서둘러 가버린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음을, 엄마가 영원히 가족들 곁을 떠나버린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대학에서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해 외로워하는 아그네스는 오빠마저 몇 년 전 사라지면서 이제 다 끊어져버린 듯한 가족을 떠올리며 절망한다. 룸메이트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나, 새로 찾아온 사랑에 깊이 몰두하는 것, 그리고 읽지도 않을 사람을 향해 편지를 쓰며 엄마와 마치 끈끈한 관계였던 것처럼 꾸며진 과거를 회상하는 것, 이 혼돈의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모든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은 모두 어떻게든 세상에 발 붙일 공간을 찾기 위한 아우성이다. 하지만 일은 점점 더 꼬여가고, 이제 두 번 다시 깨어지지 않을 친밀감을 누군가에게 느끼고 싶다는 간절한 소

망 대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아그네스에게 찾아온다.

왜 아그네스의 엄마가 집을 떠나버렸는지, 아그네스의 일상생활에 불쑥 나타나는 오빠 사이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꿈인지, 이야기는 미스터리 소설처럼 오로지 아그네스가 털어놓는 이야기만을 단편적인 단서로 푼, 던지며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숙제를 하듯 수시로 엄마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독자는 아그네스의 이야기에 간간히 등장하는 아빠가 무너진 가족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에 잠겨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그네스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지 알게 된다. 어릴 때부터 늘 불안하던 부모님 사이에서 아그네스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던 유일한 사람, 오빠 사이먼이 사라진 건 3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아그네스는 얼마 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결에 있어주길 가장 간절히 바랐던 사람은 엄마였는데, 아그네스 자신이 누군가의 엄마가 되자 엄마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한다. 딸의 입장에서만 엄마를 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자연스레 끼어들고, 자식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조금씩 느껴진다. 그리고 세상이 다 끝난 것만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 이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그네스도 깨닫게 된다.

산산조각 나버린 한 가족의 삶과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느끼는 고통을 독특한 형식으로 그린 성장 소설로, 엄마와 딸 사이에 형성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의 관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드러내며 공감을 자아낸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이스칸드리안(Kristen Iskandrian)은 훌리크로스 칼리지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조지아 대학교에서 문학과 글쓰기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의학 저널에서 편집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 『The Inheritors』가 2014년 ‘오 헨리 상 선정 작품(The O. Henry Prize Stories)’에 포함되고, 이후 「Crazyhorse」, 「EPOCH」, 「Denver Quarterly」, 「American Letters & Commentary」, 「Gulf Coast」 등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했다.

제목 : THE ORACLE YEAR
가제 : 신의 대변인
저자 : Charles Soule
출판사: The Gernert Company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스릴러



- *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의 「데어데블」, 「데스 오브 울버린」 등을 쓴 만화작가이자 현직 변호사, 전문 기타리스트인 다재다능한 작가의 흥미진진한 스릴러
- * **108**가지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게 된 평범한 남자가 세상에 일으킨 혼란, 마블 만화 팬들 사이에서 탄탄한 스토리로 정평이 난 작가다운 치밀하고 흡입력 있는 전개

먹고 살기도 빠듯한 20대 후반의 가난한 유지선, 월 덴도는 어느 날 말 그대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을 겪었다. 새벽 다섯 시경, 누군가의 음성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진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월은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도 아닌 상태로 그 생생한 미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월이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건만, 목소리가 전한 날짜와 사건들은 모두 뇌에 각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스란히 저장됐다. 그저 떠올리려고만 하면 알아서 떠오르는 이상한 사건들. 날짜로 보면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인데, 과연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날까? 월 자신도 의아했지만, 어쨌든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반신반의했지만 놀랍게도 예상은 적중했다. 월이 들은 건 그저 희한한 꿈 속의 음성이 아닌, 섬뜩하리만치 정확한 ‘예언’이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월에게 전달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 월은 고대인들이 말하던 대로라면 신탁을 받은 것이다.

월에게 전해진 예언은 총 108가지. 날짜가 가장 가까운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월은, 가장 친한 친구 함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더 사이트’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월이 알고 있는 미래 사건 중 스무 개를 날짜와 함께 공개한다. 당연히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얻지 못했지만, 처음 두 건이 그대로 현실이 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극소수만 알던 사이트의 존재는 삼시간에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까지 소문이 퍼졌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후에도 사이트의 예언은 백발백중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예언을 하는 걸까? 사람들의 궁금증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신탁을 받은 자’란 뜻의 ‘오라클’로만 알려진 사이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두의 관심이 쏠린 건 당연한 일이었다. 사이트의 설립자, 월에게는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일을 예견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지, 자신의 일이나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온갖 기도와 호기심, 절망, 희망, 고통, 집착이 담긴 사연이 월 덴도 앞으로 하루에도 수백 건씩 도착했다. 그러나 오

라클의 존재를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전부 평범한 시민은 아니었다. 너무 정확해서 섬뜩한 사이트와 오라클을 향해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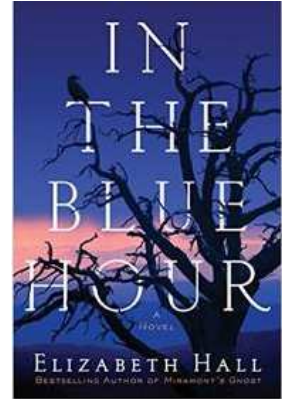
대통령의 지시로 ‘코치’라는 가명 하에 오라클의 존재를 캐기 시작한 인물이 나타나고, 월의 예언을 신의 뜻을 왜곡하는 악마로 치부한 어느 목사는 월이 저지른 대담한 행각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나선다. 그리고 월 역시 스스로도 바란 적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일들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인지하기 시작한다. 친구 함자와 함께 이 기막힌 예언을 하나의 상품으로 삼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때까지만 해도, 사이트의 인기가 급증하여 온 세상의 관심을 받는 것이 웬지 으스스해질 때만 해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결과들이 속속 들어난다. 급기야 오라클에게 광적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뉴욕과 우루과이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월의 머릿속에 어쩌면 자신에게 전달된 예언에 어떤 숨은 의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나라 전체를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변화,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계획의 한 줄기가 바로 108가지 예언이었던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예언은 단 몇 가지, 하지만 월은 지금까지 자신의 예언으로 발생한 혼돈의 상황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로 결심한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예견한 대로가 아닌 월 자신의 의지가 절실하다.

신탁의 주인공 월의 목소리와 함께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어느 날 갑자기 예견된 미래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을 생동감 있게 전한다. 강렬한 에너지와 긴장감이 가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찰스 소울(Charles Soule)은 마블과 DC 코믹스에서 데어데블, 데스 오브 울버린, 쉬 헐크, 스왐프 씽 등 수많은 만화를 썼다. 그래픽 소설로 발표한 공상과학 SF 시리즈 레터 44는 5개국어로 번역 출간되고 2016년 프랑스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Angouleme Festival), 카르카손 페스티벌(Palavas Festival)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도 활동하며 뉴욕 시에서 20년째 밴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도 활약 중이다.

제목 : IN THE BLUE HOUR
가제 : 푸르른 시간 속에서
저자 : Elizabeth Hall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11월 1일
분량 : 316 페이지
장르 : 소설/ 서스펜스



- * 베스트셀러 『*Miramont's Ghost*』의 작가가 들려주는 어느 아내의 슬픈 여행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남편이 남기고 간 메시지를 찾기 위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다
- * 아메리카 인디언의 특별한 지혜와 초자연적인 힘, 예언이 이끄는 길로 들어선 주인공과 그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 뜻밖의 인연과 치유

엘리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사고가 두 번째로 일어났다. 그것도 똑같이 교통사고로. 다섯 살 때, 아빠를 먼저 떠나 보낸 아픔이 여전히 생생한데 남편 마이클마저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만 것이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충격에 휩싸여 입을 굳게 다물어버렸고, 어린 엘리스를 데리고 세 가족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던 테네시의 집을 완전히 떠났다. 두 사람은 뉴멕시코의 커다란 산 아래 자리한 좁은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고 엘리스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웃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도, 엄마아빠와 함께 배꼽잡고 웃던 시간도 이제 다 끝난 것 같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절망스러운 건 그래도 그 땐 엄마도, 할머니도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고통을 나눌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무를 깎아 작품을 만드느라 온통 몰두하던 마이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텅 빈 집과 외로움보다 엘리스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다. 바로 마이클이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 몇 주전, 사고 장면을 꿈에서 보았다는 사실이다. 비록 운전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스가 꿈에서 목격한 상황이 그대로 남편에게 찾아왔고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미리 마이클에게 경고했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놓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엘리스를 짓눌렀다. 꿈에서 커브 길에 미끄러진 차가 마치 새처럼, 마이클이 즐겨 만들던 새 모양처럼 잠시 붕, 공중에 떠 있다가 까마득한 저 아래, 물가까지 떨어져 뒤집히던 순간, 꿈이라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엘리스를空空 움아매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사고가 난 지도 벌써 7개월째, 엘리스는 운전차 열어보지 못했던 남편의 작업실에 겨우 들어선다. 그런데 그 날, 마이클이 남긴 뜻밖의 메시지가 엘리스 앞에 나타난다. 그가 입던 낡은 재킷 주머니에서, 알 수 없는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된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를 이어받은 할머니에게서 엘리스는 어릴 때부터 초자연적인 세계의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 주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곧 적도 몇 번 있었다. 할머니는 물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물가에서 너무 늦게까지 노는 아이들이나 위험하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아이들을 잡아간다던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어느 날 엄마까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새벽녘 동틀 무렵이며 어스름이 내려 앉는 저녁 무렵, 늘 마당에 나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죽은 엄마의 영혼이 찾아와 메시지를 건넬지도 모른다고 믿은 것이다. 그런 할머니와 자라면서, 엘리스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마치 실제 인물처럼 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이클을 잃고 난 후, 엘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잊고 지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어릴 때 느꼈던 묘한 느낌, 할머니와 마당에 나가 허공을 바라볼 때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던 기억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다. 마이클이 아직 자신에게 할 말이 남아, 따라다니고 있다는 확신이 든 것이다.

타로 카드로 앞날을 예언하는 여자, 셀레스티나의 제안으로 엘리스는 심령회에도 참석하고 결국 마이클의 주머니에서 찾아낸 주소에 찾아가보기로 결심한다. 남편이 아직 못다한 말이 무엇이고 왜 아직 주변을 맴도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엘리스는 한때 셀레스티나와 알고 지냈지만 심령술이나 영매의 존재 같은 건 손톱만큼도 믿지 않는 톰 두건에게 그 주소지로 갈 수 있도록 차를 운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슬픔과 묘한 기대, 죄책감이 뒤엉킨 감정으로 떠난 이 여행은 점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마이클이 남긴 다른 단서들이 하나 둘 모일수록 엘리스 자신의 삶도 수수께끼가 하나씩 걸히기 시작한다.

매혹적인 전설과 신화가 간간히 어우러지며 가족과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홀(Elizabeth Hall)은 교사 겸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소설가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THE NIGHT VISITOR
가제 : 한밤의 손님
저자 : Lucy Atkins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544 페이지
분량 : 2017년 6월 1일
장르 : 소설/ 스릴러



- * “루시 앳킨스의 인물 묘사 실력은 정말 탁월하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실제 인물이 이야기하듯 이야기하고, 실제 인물들이 행동하듯이 행동한다.” – 「인디펜던스 일요판(*Independent on Sunday*)」
- * “루시 앳킨스는 긴장을 계속 끌어올려 책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 – 폴리 샘슨, 「*The Kindness*」의 작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2위에 진입한 역사서 <애나벨>의 작가이자, 영국 최고의 역사 교수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는 올리비아 스윗먼은 한 의대 도서관을 가득 메운 200명의 관중 앞에 당당히 섰다. 18개월간의 고된 작업 끝에 탄생한 책을 소개하고, 팬들에게 사인을 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마련한 행사였다. 높은 계단에 올라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니, 올리비아는 만감이 교차했다. BBC 역사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하고 딸 하나 아들 둘까지 세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 없는 와중에도 배려심 깊은 남편 덕분에 이토록 큰 화제를 일으킨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족들과,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던 올리비아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자신의 인사말 속에도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숨을 고른다. 비비안.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이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조력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 원천이 된 사람.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비안의 존재를 밝힐 수는 없었다. <애나벨>이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지, 이 책을 쓰기 위해 올리비아가 무엇을 했는지 그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비비안이기때, 그녀는 영원히 세상에 없는 존재여야 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연설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올리비아는 긴 코트를 걸친 젊은 남자가 도서관 구석에서 획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사전에 선별되어 초대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행사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당황해 할 시간도 없이 올리비아는 팬들에게 사인을 하기 위해 큰 테이블로 안내됐지만, 잠깐 스친 그 존재는 착각이 아니었다. 독자들과 학계의 막대한 관심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탄생한 그 들뜬 순간부터 올리비아는 쫓기기 시작했다.

올리비아에게 처음 연락을 한 사람은 비비안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한 정신 나간 여자를 다룬 다큐멘터를 보자마자, 비비안은 곧장 애나벨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 있던 애나벨의 사연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올리비아라고 생각한 것이다. 애나벨이 남긴, 애나벨이 직접 ‘나의 유일한 비밀 정보’라고 표지에 써 놓기까지 한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올리비아가 안다면 엄청난 관심을 보이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책을 쓰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역사학자인 올리비아가 학자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논문으로 써서 세상에 알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비비안이 원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올리비아의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고, 비비안은 보이지 않는 그녀의 조수가 되어 18개월 동안 함께 집필 작업에 매달렸다. 아침마다 올리비아가 수십 통 보내온 이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이 좋았던 이유는, 애나벨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뭔가에 깊이 몰두해 있는 동안 드디어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릴 때부터 예순 노인이 된 지금까지 밤이면 수시로 찾아오는 불청객, 남편 버티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다독겨주거나라도 했지만 이제 그럴 사람도 없다. 그러니 밤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올리비아가 쏟아내는 일들도 기쁘게 해냈다. 하지만 바쁘게 흘러가던 시간도 다 끝이 나고, 올리비아는 책이 완성되자마자 메일 한 통 보내지 않았다. 비비안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보낸 메일에도 딱 한 줄 답장을 보냈을 뿐, 9일째 감감 무소식이었다. 그리고 아니나다를까, 밤 손님은 여지없이 비비안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영국인이려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역사 교수 올리비아와 석세스의 한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60세 노인, 비비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비비안은 올리비아의 비밀만 아는 것이 아니었다. 혼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녀 자신만의 비밀도 있었다. 이야기는 두 사람의 시선에서 번갈아가며 이어지고, 런던과 석세스, 프랑스 남부를 오가며 둘의 뒤엉킨 관계를 조금씩 보여준다. “당신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큰 물음을 던지며, 끝없는 야망과 도덕성, 기만에 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이야기가 끝까지 호기심을 자극하며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저자 소개>

루시 앳킨스(Lucy Atkins)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 「선데이 타임스」 도서 평론가이다. 심리 서스펜스 소설 『The Missing One』와 『The Other Child』를 발표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가디언」, 「타임」, 「텔레그래프」 등 신문과 「사이콜로지」, 「레드」 등 다양한 잡지에도 글을 여러 차례 기고해왔다.

NON- FICTION

제목 : A GOOD DISRUPTION

가제 : 유익한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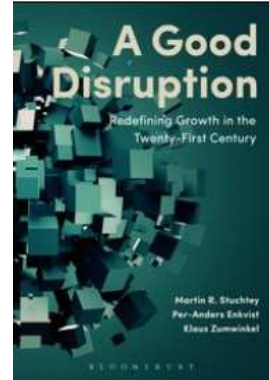
저자 : Martin Stuchley and Per- Anders Enkvist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Plc

발행일: 2016년 10월 2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경제



- * “창의력을 깨우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재생 주기를 촉발시켜 경제적 번영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설득력 있는 책이다.” – 엘렌 맥아더 재단 총재, 엘렌 맥아더
- *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설계하고 체계화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화상. 많은 영감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 –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경제학 교수 니콜라스 스턴

성장이 정체되어버린 경제가 어서 그 상태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방법으로, ‘와해성 기술’이 등장했다.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오랜 세월 각자의 영역이 존재했던 산업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섞이고 겹쳐져 매력적인 결과를 탄생시키는 것. 이러한 와해성 기술과 혁신은 시장에 처음 등장할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지만 수요자와 시장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고 개선하면서 확고히 뿌리내린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앞에 성큼 다가서고 급기야 그 자리를 대체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빅 데이터, 3D 프린트 기술,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저렴한 태양에너지, 전기로 움직이는 각종 이동수단,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와해성 기술은 이미 모든 영역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혼란 일색이다. 기술 업계는 이 독특한 혁신으로 부족한 자원 문제가 해결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지만 일자리가 축소되고 자산이 묶여버린다고 한탄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와해성 기술이 만들어낸 ‘디지털 쓰나미’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기뻐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후 한층 고무되고 태양광, 풍력, 배터리 기술이 와해성 혁신 덕에 발전하게 된 것은 흡족해하면서도 전 세계 환경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너무 멀리 넘어가버린 것 같다고 우려한다. 한 마디로, 와해성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변화일까, 염려하며 피해야 할 대상일까? 두 저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와해성 혁신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새로운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와해가 ‘우수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현재까지 와해성 기술이 일으킨 변화와 그 결과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커다란 대가를 지적하고, 모두가 원하는 강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례 연구,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와해성 혁신이 만들어낸 소중한 기회를 인류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과학, 경영 분야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와해성 기술의 의미와 영향, 전 세계 시장을 바꾸어버린 엄청난 특성을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새로운 이야기의 탄생

1부. 우리와 성장의 관계

1. 욕망 – 성장을 찬양하다
2. 가속화 – 자원 기반 성장
3. 대여 – 책임의 증대
4. 상실 – 거대한 분기
5. 폐기 – 새로운 자원으로 폐기되는 시스템
6. 중단 – 이루지 못한 지속성의 꿈

2부. 21세기에 잘 맞는 성장모형

7. 더 나은 성장 모델 세 가지
8. ‘유효성’의 새로운 기준 – 성장성, 생산성, 건전성
9. 유럽의 사례 – 경제와 환경에 모두 긍정적인 예

3부. 대대적인 와해 – 맹수 길들이기

10. 와해성 동향 – 기점에 선 세계
11. 물리적 세계의 디지털화 – 차세대 혁명
12. 와해 – 더 나은 방향일까, 악화일로일까?

(이하 생략 – 총 5부, 20장과 부록 두 편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틴 R. 스투티(Martin R. Stuchtey)는 대규모 환경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업체 ‘SystemiQ Ltd’의 창립자 겸 경영자이다. 세계경제포럼 전략 자문과 자원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맥킨지 컴퍼니와 비즈니스 & 환경 센터(Center for Business & Environment)에서 근무했다.

페르-안데르손 엔크비스트(Per-Anders Enkvist)는 맥킨지 컴퍼니에서 15년간 컨설턴트로 일하고 그 중 7년은 지속가능성 분야의 경영파트너로 근무하며 맥킨지가 추진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사업을 이끌었다.

제목 : HOW TO READ A PERSON LIKE A BOOK

가제 : 책처럼 사람도 읽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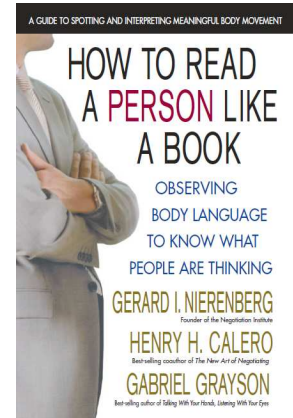
저자 : Gerard I. Nierenberg, Henry H. Calero, Gabriel Grayson

출판사: Square One

발행일: 2010년 5월 15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처세/심리학



* ‘바디랭귀지’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전, **1960**년대에 처음 출간된 비언어적 소통기술의 원조

* 사무실, 가정, 데이트, 어디에서든 상대방의 몸짓으로 속내를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기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직업과 기분, 심지어 성격과 이력까지 알아맞히는 기술은 저 유명한 셜록 홈즈나 미국 드라마 <멘탈리스트>의 주인공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탁월한 관찰력과 합리적인 추론, 풍부한 배경지식이 조합되어 상대방의 머릿속, 마음속을 꿰뚫는 기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고 분석‘당한’ 사람을 소스라치게 만든다. 문제라면 너무 정확한 추측이 사람들을 심하게 놀라게 해서 심령술사나 점쟁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꼭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곳에 가거나 카페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무심코 다른 사람을 지켜볼 때가 있다. 또는 나와 마주앉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순간도 여러 번 찾아온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몸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한다. 입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몸이 하는 그 말과 비교해서 말의 진위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보이는 몸의 언어에 어떤 의도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아챌 수 있다면, 즉 사람을 책처럼 읽어낼 수 있다면 협상도, 관계도, 우정도, 사랑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나의 어떤 제안이, 혹은 어떤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체언어 전문가 세 사람은 이 책에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의 눈이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즉 상대방이 몸짓과 표정으로 쓴 단어와 문장, 문단을 눈으로 읽는 기술이 이 책의 주제이다. 책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며, 먼저 1장에서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스스로를 훈련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어 2장에서는 서로 마주한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 의중을 파악하고, 얼굴 외에 다른 신체 부위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표정과 함께 보충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3장에서는 각각의 몸짓이 나타내는 의미를 분석한다. 말로는 말하는 이의 생각이 결코 완전하게 전해질 수 없으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말’이 남아 있고 그 대부분은 몸짓과 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대가 하려는 말, 의도, 감정, 생각을 거의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이 모든 자

료를 종합해야 한다. 4장에서는 몸짓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태도의 조합을 보여주고, 그와 같은 일반적인 조합이 왜 생겨나는지 설명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바디랭귀지와 대인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습득한 신체언어의 해석 기술을 아이와 연인, 함께 일하는 동료나 직장상사, 그 외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오랜 세월을 걸쳐 협상에서 우위를 얻고, 거짓말을 감지하고, 상대의 성적인 유혹을 간파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세 전문가의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 바디랭귀지의 열렬한 독자가 되려면
2. 그 사람 얼굴에 다 적혀 있었어
3. 손, 그리고 몸의 다른 부위들이 하는 말
4.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5. 관계와 바디랭귀지

결론

<저자 소개>

제라드 I. 니른버그(Gerard I. Nierenberg)는 변호사이자 포브스 지가 선정한 협상력 훈련의 대가로도 알려진 인물로 스무 권이 넘는 저서를 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The New Art of Negotiating』, 『The Complete Negotiator』 등을 썼다.

헨리 H. 칼레로(Henry H. Calero)는 30년 이상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기술에 관한 글을 썼다. 전문가, 학계, 기술 분야 간행물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하고 컨설턴트로 일해왔다. 저서로는 『The New Art of Negotiating』이 있다.

가브리엘 그레이슨(Gabriel Grayson)은 뉴욕 뉴스쿨대학교에서 수화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 사법기관의 수화 통역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Talking With Your Hands, Listening With Your Eyes』 등이 있다.

제목 : BORN ON THIRD BASE

가제 : 상위 1 퍼센트가 만드는 평등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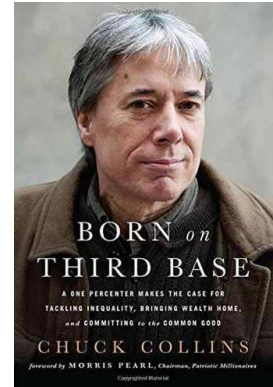
저자 : Chuck Collins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9월 2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사회/경제



- * “소득, 재산,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이 점차 확대되는 미국의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특권과 힘을 가진 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명료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 미국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
- * “부와 정의의 불평등은 모두의 삶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 ‘리소스 제너레이션 (Resource Generation)’ 대표 제시 스펙터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이 낳은 부작용과 각종 문제는 수시로 신문 1면을 차지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관련된 초유의 사태로 특권과 권력을 가진 소수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그 참담한 결과를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한 사람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늘 여기저기 전전해야 하는 사람들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줄어들 줄 모르는데, 상위 1 퍼센트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로움은 물론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에 이르는 전 분야를 입맛대로 주무르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끈다. 미국에서 바로 그 1 퍼센트의 부와 기회를 가진 집안에 태어난 저자는 그 타고난 금수저를 신나게 활용하는 대신, 스물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진해서 손가락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이름 앞으로 보장된 50만 달러의 신탁자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는 길로 홀연히 몸을 던진 것이다. 그 놀라운 선택은 그저 영웅이 되고픈 객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커다란 간격을 지켜보고, 고민한 끝에 점점 뜨거워지지만 하는 ‘계급 전쟁’은 그 전쟁의 한 축, 바로 특권계급이 먼저 나서야 해결된다는 결론이 낳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접 참여하고, 이끌고,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불평등의 피해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권력과 훨씬 유리한 도구를 손에 잔뜩 거머쥔 특권층은 손이 모자라는 한이 있어도 놀을 줄을 모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 반대쪽에서는 이 싸움에 활용할 만한 마땅한 자원 하나 없이 거대한 분노와 적개심만 가득하지만 이미 벌어질 때로 벌어진 격차를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전쟁을 새로운 길을 찾을 동안만이라도 잠시 멈출 수는 없을까? 소위 ‘다 가진 자’들은 불평등이 질게 드리운 사회를 진심으로 원할까? 저자는 30년 넘게 불평등의 원인을 연구한 끝에,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다. 양쪽 모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서 볼 때, 이 문제의 해답은 가진 쪽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욕망에 사로잡혀 집을 떠난 부유층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하며, 그 투자의 범위에는 고통에 발버둥치는 주변 사람들, 자신이 속한 사회에 손에 쥔 부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은 적개심과 피해의식을 내려놓고 부유층과 연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이와 함께,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이점까지 누리게 되는 악순환이 어디에서 왜 시작되는지 짚어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이유로 시작된 자선사업도 올바르게 못한 방식을 택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불어 저자가 살고 있는 보스턴 지역에서 불고 있는 특별한 변화의 바람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아주 간단하지만 실현되기 힘든 그 목표를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1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1. 나는 1퍼센트를 잘 안다
2. 공감으로 이어온 시간
3. 마음을 열어 짓히다

2부. 공동 사회를 보다

4. 나 혼자서 한 일이 아니다
5. 같은 배에 오른 사람들: 빌 게이츠

3부. 유리한 점을 인정하라

6. 마약 같은 특권
7. 뒤가 가장 든든한 세대
8. 피부색과 재산
9. 공평하지 않은 기회

4부. 불필요한 우회로

10. 욕실에 걸린 미로: 자선사업의 복잡한 상황
11. 자선활동이 정의에 해가 될 수도 있다

5부. 부여, 집으로 돌아와라

(이하 생략, 총 6부, 19장과 결론으로 구성)

<저자 소개>

척 콜린스(Chuck Collins)는 정책학 연구원(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학자, 사회운동가, 저술가로 활동하면서 1982년부터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기획하고 이끌어왔다.

『99 to 1』, 『Wealth and Our Commonwealth』, 『Economic Apartheid in America』 등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썼다.

제목: CITIES OF POWER

가제: 힘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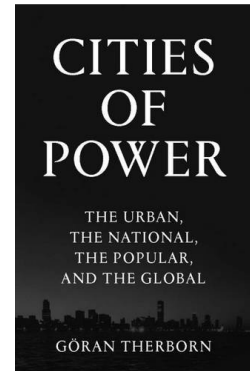
저자: Göran Therborn

출판사: Verso

발행일: 2017년 3월 14일

분량: 416 페이지

장르: 사회/역사



- * 스웨덴 출신 영국의 사회학자, 세계화와 근대성, 복지국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한 나라의 수도 이야기, 같은 나라 다른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개성과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석한 책
- * 수도의 형성 과정을 되짚은 역사서이자 세계화, 미래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도시사회의 구조를 들여다본 연구서

왜 어떤 도시들은 유난히 강력할까? 같은 나라에 속한 여러 도시들 중에서 수도가 된 도시는 왜, 어떤 차이로 그러한 지위에 오른 것일까? 사회 전반의 변화와 도시정치학을 연구해온 저자는 한 나라의 중심, 메트로폴리스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 책에서 상세히 들여다본다. 도시가 처음 등장한 먼 옛날의 역사부터 도시가 더 이상 한 나라의 구성요소가 아닌 세계의 한 부분으로 변모한 현재의 관점을 골고루 접목하여 저자는 도시가 가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설명한다.

도시가 처음 생겨난 시기는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토록 오랜 역사를 이어온 도시는 200여 년 전,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변화했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테두리로 묶인 여러 도시 중에서 중심지, '수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과정에서 원래 제각기 다른 역사와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도시가 국가라는 이름 아래로 통합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잘게 쪼개지거나 도시끼리 합쳐져서 전에 없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런 몸살을 겪은 후, 국가는 때로는 역사도, 문화도 전혀 다른 여러 도시들 중 한 곳을 수도로 삼는다. 도시가 국가가 되고, 수도가 정해지는 과정은 각 국가마다 소요된 시간이나 혼란의 정도가 모두 다르고, 이제는 어엿한 수도로 뿌리를 내린 곳에서도 그 오랜 과정이 남긴 흔적들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저자는 도시의 보다 세부적인 모습을 구성하는 건축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움직임이 도시 전체의 개성과 운명을 어떻게 좌우했는지 이 책에서 보여준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도시가 세계화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그 도시가 속한 국가와의 연결고리는 점차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훨씬 더 단단한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세계화의 흐름은 과거의 뿌리 깊은 관습과 권위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상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모더니즘과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저자는 파리의 제2 제정시대 모습과 런던 곳곳

에 들어선 기반시설, 워싱턴의 주 의사당 건물 등 세계 여러 도시를 사례로 들어 혁명 시대, 식민 통치가 끝난 이후의 시대에 그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상세히 분석하고, 21세기 '메가 시티'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도시, 국가, 대중, 그리고 세계

1. 도시와 권력, 그리고 현대성
2. 국가의 탄생: 유럽 – 웅장한 도시들의 변신
3. 국가의 탄생: 분리 독립
4. 국가의 탄생: 국가화된 식민주의의
5. 국가의 탄생: 유연한 모더니즘
6. 대중의 등장: 현대 도시 역사의 공통점
7. 절정에 달한 권력: 파시즘, 친족의 독재
8. 공산주의의 흥망성쇠
9. 도시의 세계화
10. 맺음말. 세계의 수도 – 수도와 수도시민의 미래

<저자 소개>

괴란 테르보른(Göran Therborn)은 캠브리지 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스웨덴 옘살라의 '사회과학 발전연구 협의회'의 공동 의장 출신이다. 세계 여러 대륙을 돌며 도시가 만들어낸 권력과 불평등, 성차별, 가족관계, 세계화의 흐름에 관한 연구를 이어 왔다

제목 : THE IDEALIST'S SURVIVAL KIT

가제 : 이상주의자를 위한 생존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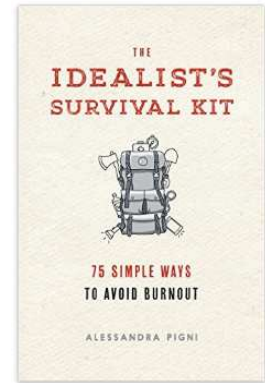
저자 : Alessandra Pigni

출판사: Parallax Press

발행일: 2016년 12월 1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정신건강



- * “중책을 맡은 기업가, 혁신가, 사회활동가 등 세상을 바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수단이 간절히 필요할 때 읽어야 하는 책.” – 사회정의 운동단체 **‘Moral Courage Project’** 창립자, 이르샤드 만지
- *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에 자진해서 뛰어들었지만 관료주의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놀랍도록 현명하고 고무적인 극복 기술을 알려준다.” – 옥스포드 대학교 임상심리학 교수, 마크 윌리엄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영웅’으로 일컬어지지만, 이들은 싸워서 넘어서야 할 커다란 벽과 자주 부딪힌다. 매일 충성이 그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될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벽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뜻 깊은 일에 스스로 뛰어들어 봉사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번아웃’ 즉 몸도 마음도 극도로 소진되어버리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인도주의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굳게 결심하고 뜨거웠던 마음이 감당하기 힘든 인류의 온갖 위기 앞에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버리고, 따뜻했던 손길도 냉소적인 차가움으로 변해 처음의 의욕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 급기야 사회운동 자체를 비판적으로 쏘아보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들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벽이다.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만들까? 팔레스타인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 처음 인도주의적 활동을 시작한 저자는 실제로 많은 현장 인력들이 이러한 문제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순수한 의도로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스스로를 현명하게 보살피고 관리하여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7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일부 사회단체의 관료주의적인 태도, 봉사에 나선 국가의 정치적인 특성과 정책상의 문제로 현장 활동가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까지, 사회운동과 자원봉사의 의미와 목적을 다 잊게 만들 정도로 목을 조이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또 스스로의 감정과 정신건강을 어떻게 다독이고 관리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인도주의적 활동과 봉사자의 생활에 관한 학계의 연구결과와 심리학, 다양한 직업과 상황에서 나타나는 번아웃 현상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종합하고 직접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체감한 사

실들, 저자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운동가들의 생생한 사연과 고민을 분석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겪지 않아야 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현 주소를 냉철하게 고발하는 한편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자신만의 경계를 세우고, 자기 자신과 주변 동료들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과 연민의 감정을 자신에게도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설명한다. 무엇보다 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난민들과 고아들,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처음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그 마음을 되새길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사회운동 단체에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뜻밖의 관료주의적 문제와 형식 절차의 늪에 빠지는 대신 잘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끝까지 매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하얗게 불태우는 대신 활활 타오르는 법

1부. 번아웃, 그리고 의미 있는 일

2부. 번아웃 그 다음은

3부. 새로운 길을 택하라

4부. 문제의 기록

<저자 소개>

알레산드라 피그니(Alessandra Pigni)는 심리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일해왔다. 2015년 옥스포드 대학교 윤리·법률·무력분쟁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팔레스타인과 중국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활동한 뒤 의식 있는 활동가들에게 찾아오는 번아웃(극도의 피로)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제목 : LIVING THE SUPERCAR DREAM

가제 : 현실이 된 슈퍼카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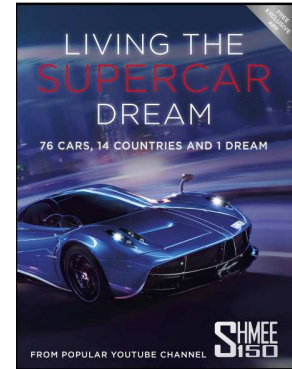
저자 : Shmee150

출판사: Blink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5월 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취미/자동차



- * 구독자 수가 **62만** 명을 넘어선 세계 최대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슈퍼카의 열렬한 팬, 전문가가 전하는 가장 특별한 자동차 **80대**
- * 저자가 세계 곳곳에서 슈퍼카와 함께 촬영한 사진들과 희귀한 자동차의 시승 장면이 담긴 디지털 콘텐츠가 책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

그저 자동차를 좋아하는 평범한 스키 강사에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 62만명, 페이스북 친구 170만 명, 인스타그램 친구 6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유명인사가 된 ‘취미 150’는 자동차 팬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한 번 타보는 것은 고사하고 실제로 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값비싼 자동차를 무수히 타보고 심지어 수집까지 하는 그는 우리나라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형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단순히 돈 자랑에만 그쳤다면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꾸준히 누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취미 150의 자동차 사랑은 각 자동차의 역사와 탄생 배경, 엔진의 성능, 다른 슈퍼카와 다른 점, 탑승감 등 해박한 지식으로 충무장되어 있고 보고 읽는 이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특유의 화법과 싱긋 웃는 친근한 표정으로 자동차와 함께 찍은 영상이며 사진들도 인기에 큰 몫을 차지한다. 이 책은 그가 처음으로 내놓은 저서로, 이름만 들어도 기겁할 온갖 명차들을 자신의 본거지인 런던과 유럽 곳곳, 중동, 아시아, 미국 전역에서 직접 타보고 만져본 생생한 체험기가 그림 같은 사진들과 함께 제공된다. 멋진 배경과 함께 찍은 각종 슈퍼카의 외형과 함께 엔진의 유형, 실린더의 개수, 사용되는 연료, 최대 출력과 속도 등 전문적인 사양이 함께 제시되어 진정한 자동차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화보집’ 겸 알짜배기 정보서가 될 것이다.

어릴 때 아버지가 모는 차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면 아버지는 늘 주변에 특별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집어내곤 했다고 저자는 회상한다. 저게 어떤 차고, 왜 특별한지 들떠서 설명하던 아버지의 음성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향한 열정을 불어 넣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자 역시 옆모습만 봐도 차종이 무엇인지, 성능은 어떤지 줄줄 꿰 정도로 자동차 전문가가 되었다. 2010년, 런던에서 열린 희귀 자동차 전시회 ‘탑 기어(Top Gear)’에 참석한 그는 처음으로 그 행사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 들었다고 설명한다. 초대 받은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모터쇼, 신차 테스트의 기회를 십분 활용해서 그간 저자가 직접 만난 자동차들은 물론 슈퍼카의 성능을 제대로 시험해보기 위해 떠난 포르투갈 여행과 알프

스 산맥, 아라비아 사막에서 경험한 짜릿한 속도감까지, 자동차에 관한 풍성한 볼거리와 이야기가 가득하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미국까지 건너가서 토종 슈퍼카를 시승하고 느낀 경험도 흥미를 더한다. 그저 겉모습만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보다 많은 일류 자동차를 몰아본 전문가가 몸으로 느낀 성능, 편안함, 핸들링의 느낌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목차>

- 로드트립 1: 런던 – 아스톤 마틴 DBS, 맥라렌 F1XX, 롤스로이스 팬텀 등
로드트립 2: 유럽 – 페라리 FF, 벤틀리 벤틀리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등
로드트립 3: 독일, 스피드와 성능 - 아우디 A8 플러스 XX, 코닉세그 원 등
로드트립 4: 알프스 산맥으로 – 포르쉐 케이맨 GT4, 맥라렌 570S 등
로드트립 5: 이탈리아, 디자인 – 페라리 라페라리, 파가니 존다 등
로드트립 6: 모나코, 베이비! – 롤스로이스 다운, 페라리 250 GTO 등
로드트립 7: 두바이, 드림 – 코닉세그 레게라, 람보르기니 베네노 등
로드트립 8: 사막에서의 질주 –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 6x6, 라이칸 하이퍼스포츠 XX 등
로드트립 9: 동쪽으로 – 렉서스 LFA, 닛산 GTR Nismo, 혼다 NSX 등
로드트립 10: 미국 서부 – 테슬라 모델 S, 포드 GT, SSC 얼티메이트 에어로 등
로드트립 11: 미국 동부 – 레인지로버 보그 오토바이오그래피, 페라리 테스타로사 등
(이하 생략, 총 14장과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쉬미 150(Shmee150)은 온라인 블로거이자 유튜브 슈퍼카 채널로 전 세계 팬을 거느린 팀 버튼(Tim Burton)의 닉네임이다. 스키 강사로 일하면서 슈퍼카 전시 행사에 참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2010년 온라인에 처음 게시했는데, 자동차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과 그만의 특별한 비디오, 사진 촬영 방식, 위트 넘치는 해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현재는 기업가이자 투자자로 크게 성공하여 직접 슈퍼카를 구입하고 시승하면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